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08.5.1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람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 강림절 후 제23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6. 내 주는 살아 계시고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옷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두터운 겨울옷을 꺼내 입으면서 헐벗은 우리 영혼의 추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더 친절하게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부끄러운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지만, 우리는 결단을 미룬 채 서성일 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는 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2 …… 인도자

♠ 교 독 문 …… 22. 시편96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노순옥 권사 Ⅱ.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35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눅17:11-19 …… 인도자
Ⅱ. 롬6:15-18 조문규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Ⅰ. 생명을 가져다주는 감사** …… 김재흥 목사
Ⅱ. 순명(順命)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522.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라 해도 주님의 숨결을 맞아들이면 아름다운 가락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과 정욕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힘겹더라도 진리의 길을 단호히 선택하겠습니다. 이 겨울에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17)/김재흥 목사	성서의 평화(9)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성애 집사	기도 : 윤수진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이춘희 집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안길상	박재실	박혜경	이형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중수	김훈동	박효선	백혜숙

▣ 믿/음/으/로/읽/는/글/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노염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해석을 확인해 줍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시4:4). 이것은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화를 내면서 그것을 몰아낸 후에 마치 당신의 영혼이 고요함의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것처럼 가책과 회개를 향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6-27).

이것은 "악한 생각에 동의하여 그리스도를 노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에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떠나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당신 안에서 빈틈을 발견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태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말4:2). 바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불같이 격정적인 상태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만 아니라 며칠 동안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는 화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잠하지만 원한의 독을 증식시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행동으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화를 피하지 않으면 원한 때문에 지성이 어두워지고 영적 지식과 분별의 빛에서 차단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제단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5:23-24). 왜냐하면 우리 안에 노염과 원한이 쌓여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교훈을 가르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전2:8)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사도 바울의 명

령에 불순종하거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함으로써 열심히 그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들이 가난하거나 노여워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영혼의 핑계들을 근절하기를 원하시는 영혼의 의사께서는, 우리가 형제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든 부당하게든 우리가 형제를 화나게 했으면 제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과하여 형제와의 불화를 치료한 후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레19:17),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잠12:28). 이 구절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화를 품는 것도 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노염의 마귀와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질병에 대적하여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때, 혼자 지내면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인내의 덕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이유 때문에 혼자 지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서 떠나려는 것은 교만 때문이며, 자신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의 원인이 자신의 태만함에 있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원인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한, 우리는 인내하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것과 평안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타내는 인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우리가 혼자 지냄으로써 인내를 위한 싸움을 피하려 할 때, 정념들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집니다. 먼저 정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세상을 등지고 혼자 생활해도 그러한 정념들은 감추어진 상태에서 성장하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정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시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인내와 겸손의 덕을 획득했다고 생각하거나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화나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고 버려 두었던 말이 마부를 사납게 끌고 가서 죽게 하듯이, 눈에 뜨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던 정념들이 폭발합니다. 우리의 정념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점점 더 사나워집니다. (계속) (존 카시안의 글)

▣ 마/음/으/로/읽/는/글

슬픔의 돌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 둔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당신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을 때라도.

때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잠시 맡기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머니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 더 쉬워지리라.
전처럼 무겁지도 않으리라.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멩이를 꺼내 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것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손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글어졌을 테니까.
(작자 미상)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김창원 정지은 조관행 홍선희 정현주
안종일 이선림 고사일 최영선 이광용 형인순 김필순 김근종 정옥영
장성호 백승민 유명숙 박홍엽 이정규 이인섭 윤수진 박경원 윤미경
서원금 박정숙 이인웅 김윤수 박옥겸 김순복 전영웅 김시영 김애경
박성수 노용래 맹은선 권미숙 김준우 우순덕 양재성 임미심 배연희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정미경 조항범 오현정 유증희 이재문 황경순 정두리
이소순 송의섭 이경남 조순덕 노미향 박찬정 권미정 백혜성 김현진

감사헌금: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오복순 왕성환 강순배 오진훈 노순옥 전세종
안길상 이형숙 박병구 최채수

생일감사헌금: 문금석 김인걸 김재환 김종구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최희영 장영숙 이선림 (누계- 10,1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송 임 회	오 송 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박 홍 엽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박 경 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백 묘 현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심	김 희 우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기 분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이 봉 옥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권 명 자	이 정 은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영 선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명 희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김 성 자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에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부장회의 :** 교육부장회의가 교회사무실에서 1시 10분에 있습니다.
3. **보고 :** 각 선교회 회장들과 각 부의 부장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사무실에 제출해주십시오.
4. **세례입교 신청 :** 금년도 성탄절에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교육에 참여하십시오.
5. **환경부 :** 생명 세상 지킴이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 예정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적어 친교실과 본당 입구에 마련된 통에 넣어주십시오.
6. **수능 :** 대학수학능력 평가시험이 16일(목)에 실시됩니다.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김서현, 윤 윤, 하진솔, 박정환, 강승모, 박인혜, 임선빈)
7. **신앙실천 :**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 속
* 헌화 : 한인철 조윤숙 (결혼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